

주부와 여대생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김 정 훈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들과 대학생들의 돈과 신용 사용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령적 차이로 인한 태도 차이와 경제적 독립을 한 금전관리자와 그렇지 못한 금전관리자의 태도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1년 6월 대학생 131명, 주부 96명을 자기 기입식 질문지에 의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Yamauch와 Templer의 돈에 대한 태도 문항을 이용한 허경옥 등(1997)의 문항들과 Dqvies & Lea (1995)와 Lea 등(1995)의 신용에 대한 태도 문항들로 5점 Likert-scale로 측정하였다; 매우 그렇다(5)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

연구 결과, 대학생들과 주부들의 돈에 대한 태도는 4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돈을 안전의 척도로 인식하는 영역에서만 주부들이 대학생들보다 높은 값을 보였을 뿐, 돈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성공의 척도로서 인식하거나, 돈이 불안의 원천이 되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한 인식함은 모두 대학생들이 주부들보다 더 큰 값을 보였다.

주부들은 돈과 관련하여 대학생들보다 안전한 태도를 보였으며 (대학생은 $M=3.07$, 주부는 $M=3.67$), 대학생들은 주부들에 비해 돈을 감정 충족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쓰거나 기분에 따라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생은 $M=3.28$, 주부는 $M=2.19$). 또 대학생들은 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주부들에 비해 돈의 양으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등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돈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향은 다른 돈에 대한 하위척도들에 비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대학생은 $M=2.26$, 주부는 $M=1.91$). 또한 대학생들은 주부들에 비해서 돈에 대해 더 많이 불안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생은 $M=3.61$, 주부는 $M=3.39$). 또 대학생들은 주부들에 비해 돈에 대해 인식함을 나타냈다 (대학생 $M=2.87$; 주부 $M=2.57$).

대학생들과 주부들의 신용에 대한 태도는 3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한적 긍정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예산관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대학생들보다 주부들은 신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으며, 제한적으로 빚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학생 $M=3.63$; 주부 $M=4.09$). 그러나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부정적 인식이 제한적인 긍정 인식보다 높은 값을 보여서 빚을 지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학생 $M=2.89$; 주부 $M=3.13$). 그런데 주부들의 예산관리 태도 경향이 학생들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대학생 $M=4.08$; 주부 $M=4.12$).